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KBS본부



[대선보도 모니터]

2022. 2. 23. (수)

우 150-790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누리동 2층 (연락처) 전화 02-781-2980 · 팩스 02-781-2989

[KBS본부 대선보도 모니터] 토론보도, 말 옮기기보다 팩트체크에 더 집중했으면 (2/21)

언론노조 KBS본부는 제20대 대선 보도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내외부에 공개합니다. 모니터링단은 신문방송학 석박사, 교수 등 미디어 전문가 그룹으로 꾸려졌으며, 주로 <KBS 뉴스 9>를 중심으로 KBS의 대선 보도들을 모니터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모니터 보고서를 집필합니다.

모니터링단의 의견은 언론노조 KBS본부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고서 내용은 가급적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그룹의 애정있는 고언이 KBS 보도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공영방송 저널리즘 도약의 토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KBS 20대 대통령 선거 보도 모니터링

2022년 2월 22일(화) <KBS 뉴스 9>

첫 법정 TV토론이 열렸고 KBS 9시 뉴스는 네 꼭지의 리포트를 통해 상세한 소식을 전했다. 주로 후보들의 주요 발언들을 정리해 요약 소개하는 형식이었다. 이 중에는 “다른 나라는 국가 GDP의 대개 15%정도를 지원했는데 우리는 5%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사실은 국가가 진 빚을 가계가 대신 진 거죠. 전세계에서 가계부채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이재명 후보),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확장재정과 금융확장 정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썼지만 우리가 다시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윤석열 후보)와 같이 중요한 정책적 지향점을 보여주는 발언도 있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중요하지 않은데도 후보들 끼리 치고받으며 나온 품격을 잃은 말들을 실어나르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기도 했다.

예컨대 “본인 마스크 잘 안쓰시죠? 부인도 잘 안 쓰시더군요. 규칙 잘 안 지키시고 압수수색, 신천지, 지금 대구에 사람이 죽어나갈 때 압수수색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 했지 않습니까? 국가의 방역에 가장 비협조적인 분이 방역 자체의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이재명 후보), “저한테 다 물어 놓고 답할 기회는 안 주고 저기다 물어봐요?”(이재명 후보), “얘기해 봐야 또 뭐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윤석열 후보), “그만 하십시오. 이따가 하세요.”(윤석열 후보)와 같은 가시돋친 발언들은 시청자들이 후보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굳이 뉴스에서 소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스튜디오에 출연해 TV토론을 정리하며 기자는 “정책, 비전보다는 감정싸움으로 번”졌다고 요약했고 앵커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런데 어찌 보면 언론이 정책 메시지보다 후보들 간 감정싸움을 하는 발언에 집중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자극적인 공격성 발언을 함으로써 주목을 유도하는 것

일 수도 있다. 후보들의 절제 못지않게 언론의 절제도 필요하다.

후보 간 감정 다툼을 전하는 것보다 시청자들이 언론에 기대하는 것은 후보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와 관련한 팩트체크일 것이다. 이번 토론에서도 특정 발언을 했는가 안했는가, 소상공인 지원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등을 비롯해 후보들이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여럿 있었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서는 명확히 알기 어렵거나 판단하기 애매한 이슈들도 있었다. 어느 쪽이 사실을 말했고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기자들이 사실관계를 검증해 토론이 끝난 뒤 곧바로 확인해준다면 시청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언론이 이런 역할을 해주지 않으니 후보들이 너무 쉽게 거짓 주장을 하거나 사실을 호도한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한 가지 방송 내용과 무관하지만 지적할 사항은 홈페이지의 방송 다시보기에 나와 있는 스크립트에 일부 후보의 발언이 실제 발언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사소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KBS의 위상과 대선 후보의 발언 내용이 갖는 엄중함을 고려할 때 자구 하나 틀리는 것 없이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날 ‘공약 돋보기’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선후보 공약은?>이었다.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이슈를 선택한 점이 돋보였다. 다만 ‘공약 돋보기’ 코너가 대체로 후보들의 공약을 단순 나열한 뒤 예산 확보 방안 부재로 인한 실현 가능성의 부족을 비판하는 ‘쉬운 길’을 가며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공식을 이번에도 답습한 점은 다소 아쉬웠다. 예산 확보의 중요성이야 당연하겠지만 공약 내용 자체에 대한 비교나 평가가 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다.